

만남과 이별의 장, 화북포구

조선시대 제주의 관문이었던 화북포구는 예로부터 육지에서 내려온 제주목사와 유배인들이 제주에 처음 발을 내딛는 곳이자 제주를 떠나는 통로였다. 새로운 인연에 대한 설렘과 떠나는 아쉬움이 공존했던 화북포구는 만남과 이별의 장이었다.



금산5길 | 제주시 화북1동 1637-1 ~ 제주시 화북1동 4277-6(약 0.7km)

진북길 | 제주시 화북1동 1618 ~ 제주시 화북1동 1594-4(약 0.3km)

진남로 | 제주시 화북1동 4130-3 ~ 제주시 화북1동 1781-1(약 0.7km)

진동로 | 제주시 화북1동 1994-8 ~ 제주시 화북1동 1528(약 0.9km)

진서로 | 제주시 화북1동 1983-7 ~ 제주시 화북1동 4296(약 0.8km)

금산길 | 제주시 화북1동 4037-5 ~ 제주시 화북1동 4269-11(약 0.4km)

청풍길 | 제주시 화북1동 1947-27 ~ 제주시 화북1동 1936-11(약 0.2km)

삼사석길 | 제주시 화북1동 1384 ~ 제주시 화북1동 1809-2(약 0.7km)

별도봉길 | 제주시 화북2동 4624-7 ~ 제주시 화북2동 4600-3(약 0.2km)

곤을길 | 제주시 화북1동 4133-2 ~ 제주시 화북1동 4269-8(약 0.6km)

동제원길 | 제주시 화북1동 4660-2 ~ 제주시 화북1동 4344-2(약 1.3km)

원두길 | 제주시 화북1동 4699 ~ 제주시 화북1동 4683(약 0.4km)

금산5길 / 진북길 | 화북포구와 해신사



해신사

금산5길에는 과거 제주와 외부를 연결하던 화북포구가 있다. 하늘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던 조선시대에는 바닷길을 통해 제주를 드나들었다. 화북포구는 제주로 들어오는 여러 포구들 중 주로 이용되었던 포구이다. 화북포구의 옛 이름은 별도포(別刀浦)이다. 별도라는 이름은 ‘신역의 뒤’를 의미한다는 이야기, 별도봉 북쪽 사면이 깎아지른 듯 가팔라서 별도라 부른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별을 하는 나루터라는 뜻에서 별도라 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고전소설 <배비장전>의 무대이기도 한 화북포구는 조선시대 많은 목사들과 유배인 또는 제주를 찾은 사람들이 제주에서 첫 걸음을 내딛는 곳이었다. 그들은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을 것이다. 하지만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는 법, 다시 제주를 떠날 때가 되면 헤어져야 하는 슬픔에 쉽사리 발을 떼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게 화북포구에는 만남의 기쁨과 더불어 이별의 안타까움이 공존했다.

제주를 떠나는 사람들의 발길을 잡았던 또 한 가지 이유는 험한 바다였다. 나룻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야 했던 사람들은 바람이 심할 경우 몇날 며칠을 출항하지 못한 채 발이 묶여있어야 했다. 우여곡절 끝에 출발하더라도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 어느 때 풍랑에 휩쓸리지는 않을까하는 불안함이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다를 관장하는 신에게 무사히 항해를 할 수 있도록 제를 지냈다. 화북포구에 있는 해신사가 그런 역할을 했다. 금산5길에서 진북길을 따라 바다에 이르면 만날 수 있는 해신사는 바다의 용왕에게 해신제를 지내는 곳이다.

해신사는 1820년 한상목 목사가 해상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 세웠다. 제주목사가 되어 화북포구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해신사에 들러 바다를 무사히 건너게 해 준 것에 감사를 드렸다고 한다. 추사 김정희는 제주에서 오랜 유배생활 끝에 비로소 해배가 되어 화북포구를 통해 육지로 떠나려고 했으나 날씨가 좋지 않아 배를 띄우지 못했다. 그러자 해신사에 스스로 제문을 지어 제를 올리면서 날씨가 잠잠해지길 빌었다고 한다. 오늘날 해신사에서는 매년 음력 정월에 마을제를 지내며 화북마을의 무사안녕과 번영을 빌고 있다.

진남로/진동로/진서로/진북길 | 화북진성

옛 화북진성이 있던 곳의 주변 길들은 성의 남쪽 도로라는 의미로 **진남로**, 동쪽 도로의 의미로 **진동로**, 서쪽 도로의 의미로 **진서로**, 북쪽도로의 의미로 **진북길**이 부여되었다. 조선시대 많은 사람들이 화북포구로 드나드는 만큼 외부의 침입에 대한 위험도 높았다. 그래서 1678년에 화북진성을 설치해 왜적의 침입에 대비했다.



화북진성

화북포구는 제주성과 가까운 곳에 있어서 이곳이 적에 손에 들어가면 제주성까지 금방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 화북진성은 화북포구 일대를 방어하면서 제주의 관문을 지키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했다.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 화북진성은 성벽의 일부만 남아있다. 성벽에 깬 오래된 돌이끼들에서나마 오랜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다.

금산길/청풍길 | 금산마을과 청풍마을

금산마을을 지나는 **금산길**은 예부터 내려오는 금산물의 의미를 반영한 이름이다. 맑은 바람이 불어 온다는 의미인 청풍마을은 옛 화북진성의 남쪽에 있다. 마을을 지나는 **청풍길** 역시 마을이름을 반영하였다.



청풍마을

옛날 화북진성이 있던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살면서 마을을 이루었다. 그 중 한 마을이 화북진성의 서쪽에 있는 금산마을이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 함부로 나무를 베는 것을 금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산을 금산이라 불렀다. 이곳에도 동산에 나무를 심고, 훼손을 막았던 금산이 있어 금산마을로 불리게 되었다.

청풍마을에는 오래된 팽나무 주위에 돌을 쌓아 만든 쉼터가 있는데 이곳을 청풍대라 불렀다. 나무 아래에 있는 비석에는 청풍대(淸風臺)라는 글씨와 함께 화암 신흥석 선생을 기리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 이곳에서 옛날 문인들은 불어오는 맑은 바람을 맞으며 멀리 펼쳐진 넓은 바다를 벗삼아 풍류를 즐겼을 것이다.

삼사석길 | 삼사석

삼사석길은 탐라국을 세운 고·양·부 삼신인과 관련된 유적인 삼사석을 지나는 길이다. 삼성신화에 따르면 삼성혈에서 솟아난 삼신인은 벽랑국 세 공주를 맞아 혼인을 하고 머물 곳을 정하기 위해 활을 멀리 쏘았다. 그리고 각자 자신의 화살이 향한 곳을 찾아 정착했는데, 그곳이 일도리(一徒里)·이도리(二徒里)·삼도리(三徒里)로 지금의 일도동, 이도동, 삼도동이라고 한다. 화북에 있는 삼사석은 그 때 쏘았던 화살이 꽂혔던 돌이라고 전한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돌들을 석실을 만들어 보호했다. 1735년 김정 목사는 이 돌들에 전해져 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 연유를 밝히는 삼사석비를 세우기도 했다. 이후로도 석실과 비석이 비바람에 훼손이 되자 여러 사람들의 손에 보수되면서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다. 삼사석의 이야기에서 오래 전 탐라국의 흔적을 잠시나마 만날 수 있다.

별도봉길 / 곤울길 | 별도봉과 곤울동

별도봉길은 별도봉으로 진입하는 길을 의미한다. 별도봉은 사봉낙조로 유명한 사라봉 바로 동쪽에 있는 오름이다. 사라봉과 연결되는 산책로가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다. 오름의 능선을 따라 건다보면 시원하게 펼쳐진 바다를 감상할 수 있다. 산책로의 중간쯤에 있는 얘기업은돌은 마치 아이를 업은 듯한 모습처럼 보여 별도봉의 명소가 되고 있다.

별도봉의 동쪽 능선으로 내려오다 보면 돌담이 쌓여있는 곳을 만난다. 이곳에는 곤울동이란 자그마한 어촌마을이 있었는데, 4·3사건 때 초토화되어 마을이 사라졌다고 한다. **곤울길**은 이 마을의 이름을 반영한 것이다. 사람들이 살던 흔적은 대부분 사라져 버렸지만 집터와 돌담들을 보면 마을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한쪽에 방사탑이 세워져 있어 당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넋을 위로하고 있다.

동제원길 / 원두길 | 동제원과 원두천

동제원길은 옛날 이곳에 동제원이 있었다는데서 유래된 이름이다. 원(院)은 각 지역을 드나드는 관리들에게 음식과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시설인데 화북에는 동제원이 있어 그 역할을 했다. 고려시대 이곳은 삼별초와 제주 관군이 전쟁을 벌였던 장소였다고 한다. 진도에서 패하고 제주로 향한 삼별초는 제주를 지키던 관군들과 곳곳에서 싸움을 벌였는데 삼별초의 이문경 장군이 이곳에 진을 치고 관군에 승리를 거두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동제원길에서 볼 수 있는 화북천은 별도천이라고도 하며 한라산에서 발원해서 중산간 마을들을 지나 화북에 이르는 하천이다. 화북천은 예전에 위치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렸는데 현재 원명사가 있는 일대에서는 원뒤내(원두천)라고 했다. 그래서 이곳을 지나는 길에 원두길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화북천은 상수도가 보급되기 전까지 마을 사람들의 생활용수로 요긴하게 사용되었다고 한다.

조선시대 육지와 제주를 연결했던 화북지역은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다. 과거와 같은 역할은 제주항에 내주었지만,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제주 사람들의 발길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